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선택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에 투표를!

1차 투표에서 기호2번이 최다 득표 조합원들은 “박근혜와 맞짱”을 선택했다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해 결선에 올랐다. 한상균 후보조가 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 최대 정파 연합인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를 누르고 1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상균 후보조가 최다 득표를 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첫째,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노동자들에게 파상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와 맞짱” 뜨겠다며 2015년 총파업을 단연 강조했는데, 바로 여기에 조합원들이 화답한 것이다.

반면,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투쟁을 2016~17년으로 미룬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의 주장은 이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1차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이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자,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호4번 주장에 대한 정면 반

박이었다.

둘째, 현장에서 투쟁을 이끌어 온 후보들의 면모가 “2015년 총파업” 공약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믿음을 얻은 것이다. 한상균 후보는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의 선봉장으로, 이영주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기호4번 후보조는 “준비된 통합지도부”임을 강조했지만, 오랫동안 민주노총 상층에 머문 그들의 경력은 조합원들의 호감을 얻지 못했다. 최대 정파들이 연합을 하고도 30퍼센트 남짓 득표에 머문 것은 그들이 집행한 지난 10년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혹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노련해 보이는 상층 관료가 아니라, 투박해 보이지만 박근혜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현장 투사 후보들을 선택했다. 이것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으로, 말대로 싸우는 지도부로 바꿔 보자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것이다.

기세를 모아 결선 승리

기호2번 찍고 함께 투쟁 조직을 시작하자

지금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 비정규직 확산,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등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느냐에 노동자들의 삶이 달렸다.

결선에서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당선한다면, 민주노총이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독주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것이다. 투쟁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크게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머뭇거리던 조합원들도 지도부의 공식 투쟁 호소에 응하면서 투쟁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를 당선시키고 함께 투쟁 조직을 시작하자.

박근혜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 공공-민간부분 이간질에 맞서 단결해 투쟁한다면,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기호4번의 투쟁 전략 비판

투쟁 회피·야권연대로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기호4번 전재환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드러난 현장의 정서에 압력을 받은 탓인지, 결선에선 “박근혜와 정면승부”, “2015년 총궐기투쟁”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 전략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호4번은 여전히 2015년 총파업은 불가능하다며 ‘준비된 투쟁’을 강조한다. 총파업은 “뺑파업”, “넓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뺑파업?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철회·축소

그러나 그동안 총파업이 불발하며 ‘뺑파업’이 된 이유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냉소를 부르고 사기저하를 낳았다.

즉, 투쟁을 회피해 온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관료주의가 진정한 문제다. 그러데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기호4번 세력이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조합원을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적반하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세가 쏟아지는 지금, 강력한 파업 없이는 “박근혜와 정면 승부”도 불가능하다.

또, 기호4번은 총파업 주장을 “특정 정파”의 “고립된 돌출 행동”이라고 매도한다. 이는 1차 투표에서 조합원 33.5퍼센트가 2015년 총파업에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현장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패전의 장수”? 민주노총의 연대 부족이 핵심 문제

기호4번은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끈 한상균 후보가 “패전의 장수”라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십자포화 속에서도 영웅적으로 싸웠다. 당시 투쟁에서 부족했던 것은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였다. 이런 점을 진지하게 돌아보지는 않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열을 내는 것은 지도자다운 태도가 못 된다.

반면 한상균 후보는 지난 투쟁들을 교훈 삼아 “조합원들이 홀로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과 전략적 야권연대

기호4번은 2016~17년에 가서야 “준비된 투쟁”을 하자고 한다. 2015년 박근혜의 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는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이다. 그간 여러 집행부가 ‘준비해 싸우자’며 투쟁을 회피했다.

전략적 투쟁 시기를 총·대선으로 맞춘 것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략적 야권연대로 귀결된다. 기호4번은 ‘야권연대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을 진보대통합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힘을 실어주는 야합에도 동참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투쟁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독이다.

“국민적 지지” 핑계로 투쟁 회피 말아야

기호4번은 투쟁을 늦추자는 근거로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철도 파업 등에서 보듯,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울 때 광범한 연대와 지지가 건설될 수 있다.

거꾸로 노조의 단호한 투쟁보다 “국민적 지지”를 앞세우는 논리는 투쟁 회피, 양보론의 핑계거리가 되곤 했다. 이런 논리로는 당장에는 “국민적” 인기가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규직의 임금 방어 등을 위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 민중의 호민관이 되는 길은 단호하게 박근혜에 맞서는 것이다.

기호4번의 “정파 초월 통합 지도부” 구상

조합원에게 외면 당한 정파 담합

기호4번이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통합 지도력”은 1차 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1차에서 끝내자”던 최대 3개 정파 연합후보가 과반 득표는커녕 1등도 놓쳤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호4번은 결선에서도 ‘정파 초월 통합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지도부의 잘잘못을 조합원들로부터 평가 받지 않겠다는 셈이다.

진정한 ‘통합’과 ‘단결’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들 사이의 정파 ‘담합’이 아니라 바로 투쟁 속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지금 박근혜의 파상공세 공격과 이간질에 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어깨를 걸고, 전체 노동계급이 함께 싸울 때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

기호4번이 제시하는 진보대통합도 단결과 는 거리가 멀다. 기호4번이 통합진보당까지

포함하는 진보대통합을 제시한 것은 누가 봐도 집행권 재창출을 위한 무원칙한 야합일 뿐이다. 국민과와 중앙파와 통진당 세력은 진보정당 분열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통진당은 선거부정·폭력 사태·전략적 야권연대 추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포함하는 진보대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